

올해 국제교류수업 학교 86개교

2023년 40개교 · 작년 61개교 등 3년 연속 참여 학교 수 ↑

전북교육청, 안전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1차 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로 3년째 ‘국제교류수업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참여 학교 수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40개교로 시작한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2024년 61개교, 2025년 86개교로 해마다 20개교씩 증가했다. 3년간 누적 187개교, 참여학생수는 5,000여 명에 이른다. 학생들의 세계시민역량 함양 및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교육 기반의 글로벌 학습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온라인 공동수업, 해외 현장체험학습, 해외학교 초청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수업 중심 모델로 설계돼 있다. 참여 학생들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학생들과 실제 수업을 공유하

고, 이후 교류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내에 해외학교를 초청해 대면 수업을 이어감으로써 수업의 실천성과 지속성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이해도, 글로벌 문제 해결 역량 등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올해 국제교류수업 학교 운영 주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평화 · 인권 · 역사 이해 △다문화 · 상호이해교육 △첨단기술 기반 진로 탐색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학생들의 사고력과 세계시민성 및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연계형으로 구성된다. 전북교육청은 국제교류수업 학교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 단계부터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이날 교육청 2층 강당에서 국제교류수업 학교관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국제교류수업 학교관리자 및 인솔 교원을 대상으로 1차 해외 현장체험학습 컨설팅이 열렸다.

리자 및 인솔 교원을 대상으로 1차 해외 현장체험학습 컨설팅을 가졌다. 안전한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체험학습 계획의 적절성과 안전교육 이행 여부 △숙박 · 교통수단의 안전성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서거석 교육감은 “국제교류수업은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통해 세계와 소통 · 협력하며,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살아 있는 교육”이라며 “국제교육수업 학교들의 해외 학교와의 교류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글로벌 교육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

계약업무 담당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3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5년 계약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각급 학교 및 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교육은 계약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4월 30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과 계약 일반 안내, 차세대 나라장터 활용 방안, 계약업무 유의사항, 지역업체 제 품 우선구매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성과 청렴 교육도 이루어졌다.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계약을 위한 계약업무 운영 방안을 비롯해 공공구매제도를 안내한 뒤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실적 우수기관 4곳, 학교 24개교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공유 시간을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계약업무 담당자의 실무 능력 향상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과 상생 ·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비전대 등, 지역문제

해결형 혁신인재 양성 MOU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에코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김영주)은 최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흠)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주운주), 울산과학대학교(총장 조흥래) 차세대통신 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송경영),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와 함께 지역문제 해결형 혁신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교육 콘텐츠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 운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형 교육과정 구축 △정보 및 인프라 공유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 실무형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생 참여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산업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력을 약속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전북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HUB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사진은 양오봉 총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국가 K-방위산업 발전 핵심 전략 거점

전북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HUB 특화연구센터 개소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서 실질적 기술 실증 기반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 손재일)와 함께 ‘전북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HUB 특화연구센터’를 최근 대학 내에 개소했다. 이번 특화연구센터 개소는 K-방위산업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북대와 관련 분야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손을 맞잡아 이뤄진 것으로, 산학연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과 동시에 대한민국 K-방위산업 발전의 핵심 전략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은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등 대학과 기업, 지자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오봉

총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개소식은 김관영 도지사의 축사와 손재일 대표의 인사 및 사업 소개에 이어 현판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소한 HUB 특화연구센터는 전북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해 방위산업 분야의 집중육성과 첨단 방산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정밀무도 기술, 첨단소재 개발, 미래 항공엔진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술 실증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의 첨단 전략산업인 방위산업 분야 육성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부터 국내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오봉

신설해 K-방산 핵심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센터의 개소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련장포, 잠수함 및 함정 MRO 등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산업적 역량과 전북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가 결합된 사례로, 산학협력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에 개소한 HUB 특화연구센터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을 통한 지역 상생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으로서 전북대의 도전과 혁신을 상징한다”며 “전북대학교가 K-방산의 첨단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선도하는 핵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총장은 “이번 특화연구센터가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전문성 강화

전북교육청, 지원단 65명 구성 · 운영… 단위학교 밀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지난 24일 전주비전대학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년간 컨설팅 노하우를 지닌 고등학교 교사 65 명을 구성하고, 단위 학교를 밀착 지

원하고 있다. 이 연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육부 훈령 504호의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변경 사항 및 기재 요령 안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연구원이 강사로 참여해 부당점정 및 오류 기재를 사전 예방, 4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선 사항 및 출결 변화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현장실무지원단 간의 멘토-멘티 체제로 구축해 지속적인 협력과 전문성을 공유한다. 이는 단위 학교의 기록 책무성 강화 및 관리체계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진로와 진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현장 교원들의 기재 역량을 한층 높이고, 공정한 교육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기계가공학회 캡스톤 디자인 논문 ‘혁신상’

전주대 산업공학과 김정한 · 김수민 · 최원준씨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산업공학과 김정한 · 김수민 · 최원준 재학생이 2025년 한국기계기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캡스톤디자인 논문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2건의 캡스톤디자인 논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스태커 크레인 포크 프레임의 구조해석 △유압실린더 위치에 따른 Air Dnle 파동기 연결부 유연체 해석 논문이 이층호 교수의 체계적인 지도와 김정한, 김수민, 최원준 재학생의 팀워크로 완성됐다. 이번 학술대회 참가는 전북특별자치도 후원,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의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인력양성사업과 전북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BIR&D)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수상 학생들은 해당 사업의 지능형기계부품사업 학사 과정에 참여 중이다. 본 과정은 미래수송기기, 스마트농기계, 첨단제조 등 전북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된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들은 졸업 후 전북 우수기업의 R&D와 생산기술, 품질관리 등의 분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층호 교수는 “산학 연계를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 연구를 강화한 결과가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학생들이 지역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학협력 기반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중등 영어교원 전문성 함양

26일 워크숍 개최… 맞춤형 수업설계 · 수업 사례 나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중등 영어교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은 학생 맞춤형 영어수업과 영어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중등 영어 교원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WinC(윈크) 프로젝트 사례 발표 △에듀테크 기반 영어 기초학력 향상 방안 △영어과 학습부진에 대한 이해: 원인과 쟁점 △영어수업전문가 연수 사례 나눔 등으로, 현장 중심의 강연과 실제 적용 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된다. 윈크는 ‘We increase confidence in English(우리 모두 함께 영어 자신감 향상)’라는 의미로,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루 영어 한문장 학습으로 영어 자신감을 향상하는 프로젝트이다. 워크숍에서는 윈크의 교수학습 자료 전시 및 나눔 행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한 학습자료와 학생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교사 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중 · 고등학교 영어교사들로 구성된 윈크 지원단이 직접 참여해 수업 설계 아이디어와 실행 기술을 공유해 보다 내실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교사 간 협력과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며 “중등 영어교원의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영어교과 학력향상과 학생중심 미래형 영어교육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가 타지키스탄 국립사범대학교와의 교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타지키스탄 국립사범대와 교류 강화

올해 안 JBNU국제센터 설치해 유학생 5000명 유치 박차

전북대-타지키스탄 국립사범대 한국어센터도 개소기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타지키스탄 국립사범대학교(Tajik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TSPU)와의 교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지난 2015년 타지키스탄 국립사범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학생 교류를 중심으로 꾸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도 타지키스탄 국립사범대학교 학생 10명이 전북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타지키스탄 국립사범대학교 이보돌로조다 아흐리딘(Ibodullozoda Ahiddin) 총장과 타지키스탄 외교부 관계자들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북대를 공식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양측은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양 대학은 올해 안으로 타지키스탄국립사범대학교 내에 전북대 국

제센터(JBNU International Center)를 설치하고, 동시에 ‘전북대-타지키스탄국립사범대 한국어센터’를 개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타지키스탄 내 한국어 전공 학생 및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10년 가까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타지키스탄 국립사범대와의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 대학 간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전북대가 지향하는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시대를 앞당기고, 더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대학 간 학술 교류, 공동 연구, 언어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